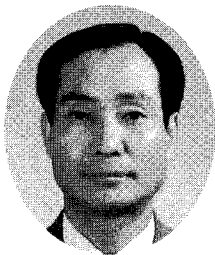


VISION 21 - 21세기 식량부국 이끈다(Ⅲ)

충청북도농업기술원

5년연속 풍년농사 달성과 '충북 쌀 명품화' 위해 최선을 다할 터

쌀 안정생산기술 보급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위해 시범사업 전개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 위해 「이동 진단실」운영 할 터



한 병 학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지난해 충청북도는 농업인 구, 경지면적 등 불리한 영농여건을 극복하고 4년연속 풍년농사 달성으로 IMF 시련 극복 및 농가의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계속되는 논 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휴경논 생산화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타작물 재배논의 벼 재배지도, 농지전용억제를 통하여 벼

재배 면적이 6만3백68ha로 목표보다 1천1백68ha를 초과 달성하였다. 또한 벼농사 사상 최고인 단수 5백18kg을 달성하여 농림부의 농정평가 3년연속 및 쌀 생산대책 4년연속, 배수개선사업 2년연속 우수도 입상 등으로 71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친환경농업의 선도실천으로 농산물 청정도

전국1위(부적합율 1.6%⇒ 0.5%)로 충북농업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국민의 기초식량인 쌀의 안정생산에 역점을 두고 태풍피해 등 각종 재해 대책의 효율적 추진 및 병해충의 정밀예찰, 예방위주의 사전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충북 농업인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책의 지속적인 개발과 충북농업의 비전이 담긴 「충북CHANG21」의 착실한 뒷받침으로 새천년은 「충북쌀의 명품화」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전력을 다할 각오이다.

지속적인 쌀 안정생산 기술 보급과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전개

양질다수성 품종을 재배하여 품질향상을 통해 『충북쌀 명품화』시범사업을 전개토록 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전개한다. 새천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부응하여 농업인이 당면하고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 육성된 품종과 새로 연구개발된 기술, 새로운 과학영농시설 지원을 통한 새기술 실증



양질다수성 품종을 재배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충북쌀 명품화 시범사업을 실천할 계획이다

시범포를 식량작물생산 분야의 지역특산미 연중출하 시범사업 등 77종을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4백32개소의 사업장에 68억9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업인과 연계하여 역점사업으로 중점 추진한다.

양질다수성품종재배는 식부면적대비 77%에 지역명성에 걸맞는 양질품종을 선정하고, 종자 확보는 정부보급종 7백32M/T, 농업기술원생산종자13M/T, 자체시범포산 1백24M/T을 공급 완료하였다

벼 재배면적 확보 위해 휴경논에 대한 생산화 추진

벼 재배면적의 확보는 곧 쌀 안정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영농조건이 불리한 휴경논에 대한 경운, 정지등 간이기반 정비사

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휴경논 생산화 계획으로 2천1백80ha를 계획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80ha, 재생산화사업으로 2천1백ha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신규 대상지에 대하여는 순지방비로 ha당 1백만원을 지원, 생산화가 안된 휴경논을 최대한 발굴하여 4월말까지 생산화 사업을 추진 완료한다.

주요피해 병해충인 벼물바구미,도열병,벼멸구 등에 대하여 공동지원방제 실시

'99년에는 39만5천8백16ha를 방제하였으며, 그중 공동지원방제로 5만9천99ha에 17억여원을 지원하였다. 올해 벼농사 방제계획은 벼 재배면적의 5.4회인 32만7천88ha로 공동방제비 16억8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정밀예찰과 소요약제를 사전에 확보도록 하는 등 병

해충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작업시 농약의 흡입을 방지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벼 농사를 위주로 하는 농업인에게 농약안전사용장비(개량마스크) 3만5천여셋트를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4월말까지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과제실천

최근 충북지역의 중산간지논에서 문제가 되는 해충으로 무방제시 30~40%의 감수가 예상되는 벼 먹노린재의 월동 및 본논 이동시기와 벼 먹노린재에 대한 효과적인 약제를 선별하여 방제효과를 구명하고자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로 충북농업기술원의 이기열 연구사의 연구로 월동 및 이동시기와 효과적인 방제 약제를 선별하여 농약품목등록자료로 활용도록 하였다.

농작물 병해충 현장 「이동에
찰실 운영」 활동강화

농작물의 과학적인 정밀예찰과 분석으로 병해충의 신속 정확한 발생전망을 예측하여 발생정보의 조기확산으로 농작물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예찰포 및 관찰포 설치운영과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설치운영, 현장지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원 자체로 「이동진단실」운영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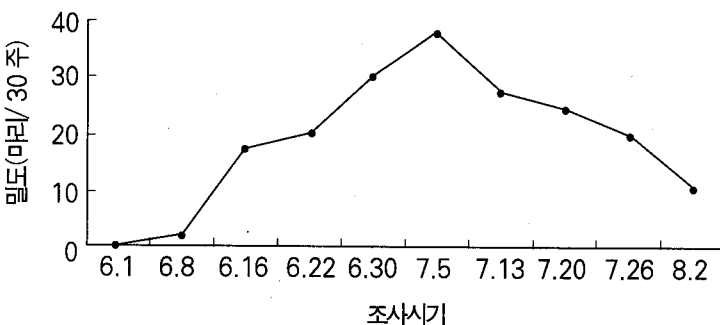
최근 외국과의 농산물 교역량 증가로 외래 병해충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배되는 작물의 다양화와 유사피해 증상 등 잘못된 진단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다. 그러므로 병해충의 정확한 분류동정을 위하여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설치(9개소)하고 주요 영농시기별로 영농현장을 순회하면서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데 기여토록 하겠다.

지난해에도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동진단실을 운영하여 농업인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바 있다. 특히 농작물 병해충 이동진

벼 먹노린재의 월동장소 및 월동부위

구분	월동장소			월동부위			월동태
	산기슭	제방	논둑	토양속	낙엽밑	고사집초속	
마리수	23	5	7	2	23	10	성충
비율	65.7	14.3	20.0	5.7	65.7	28.6	

벼먹노린재 월동성충 본논 이동시기



※. 적요

- 벼먹노린재 월동장소는 산기슭의 낙엽밑에서 성충태로 월동함
- 월동성충의 본논 이동시기는 6월 초순부터 시작하며, 본논에서 7월초에 밀도가 가장 높았음.



현장기술지원 추진대책협의회 개최장면

단실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순회 출장서비스를 통하여 영농기에 일손이 바빠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오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전화 요청시에도 신속하게 영농현장을 찾아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영농현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농업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농업·환경 문제 깊이 생각

환경의 문제는 우리 당대의 문제만이 아니다. 후손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고 생활할 수 있는 농토를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농업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이

절실이 요구된다.

이를위해 우리도에서는 친환경시범마을 2개소를 육성키로 하고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와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의 2백12농가 1백12.6ha에 1차년도 사업으로 9천1백만원의 지원하였다. 직접지불제는 3천9백21호가 참여하여 1천6백66ha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8억7천3백만원의 지원보조금을 지불했다. 2000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시범마을 2개소와 직접지불제 1천7백55ha, 친환경농업교육장 1개소를 신축하는 등 13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농업재해의 사전대책 추진을

위한 「쌀 생산대책 상황실」 운영

올해 쌀 생산 목표 및 5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도단위 농산관계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단계별 영농대책을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영농상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쌀자급 지속에 기여코자 11월 30일까지 근무조를 편성하고 기술영농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한다.

1단계는 영농준비, 2단계(4.1~6.30)는 못자리설치 및 모내기, 3단계(7.1~9.30)는 병해충방제 및 재배관리, 4단계(10.1~11.30)는 벼베기, 건조, 수매지도 등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영농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대책지도와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농작물관리요령, 병해충 발생과 방제대책 등 종합적인 기술지원과 지역언론사 및 유관기관, 농업인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농약정보**